

# 서양 복식

참고문헌: 서양복식문화사, 예지각, 2008

## 초기 로코코 - 남자의 의상

명칭	특징
쥐스토코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쥐스토코르의 특징은 꼭 끼는 허리와 뒤쪽으로 아름답게 퍼진 웨이스트 플레어가 있는 재킷의 전신으로 아직은 ( 코트)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.</li> <li>2. 쥐스토코르는 여성적 우화함을 가져와 그 실루엣은 여성복에 가까웠다.</li> <li>3. 18세기로 들어오면서 쥐스토코르는 그 모양이나 장식이 더욱 세련되고 아비 아 라 프랑세즈로 명칭이 바뀌었으며, 전유럽에서 공식복으로 착용되었다.</li> </ol>
베스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바로크 시대의 상의로 착용했던 ( 푸르푸앵)이 쥐스토코르 속에 입혀진 것으로 쥐스토코르 밑에 반드시 베스트를 받혀 입은 것은 전대와 다름이 없다.</li> </ol>
퀵로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퀵로트는 다리에 꼭 끼는 짧은 바지로 ( 쥐스토코르)와 함께 등장하였다.</li> </ol>

## 초기 로코코 - 여자의 의상

명칭	특징
코르셋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코르셋은 웨이스트를 가늘게 보이기 위한 의복으로써 ( 슈미즈) 위에 입었다</li> <li>2. 프랑스 명칭의 코르셋인 코르 발렌은 고래수염으로 심을 넣고 화려한 걸감을 싸서 만들었다.</li> </ol>
파니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6세기 초 스페인 모드에 기원을 두고 있는 베르튀가당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.</li> <li>2.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인 뒤에 파니에를 ( 슈미즈 ) 위에 착용하여 스커트의 실루엣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다.</li> </ol>
로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로브는 18세기 로코코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전개되어 로코코 의상의 표정과 분위기를 좌우했다.</li> <li>2. 바토 가운은 앞까지 풍성한 (로브 블랑트)와 앞은 꼭 맞고 뒷부분에는 바토주름이 늘어진 (로브 아 라 프랑세즈)로 나눌 수 있다.</li> <li>3. 대표적인 로브는 뒤의 주름이 풍성한 바토 가운이다. 바토 가운은 화가인 바토가 이런 옷을 입은 여인을 아름답게 그렸기 때문에 ‘바토 주름’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.</li> </ol>

## 근세 복식-영국 모드가 후기 프랑스 로코코 의상에 미친 영향 및 변화

명칭	특징
아비 아 라 프랑세 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아비 아 라 프랑세즈는 차츰 ( ) 경향이 없어지면서 기능적이 고 직선적으로 되면 세련되어졌다.</li> <li>-아라 아 라 프랑세즈는 남성 공식 복장으로서 쥐스토코르, ( ), 컬로트의 한 벌로 이루어져 있다.</li> </ul>
베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루이 16세 때 영국의 질레가 ( )를 압도하면서 실내에서만 입는 사치품이 되었다.</li> <li>-질레는 소매가 없고 길이는 허리까지 오고 밑자락은 ( )이다.</li> <li>-재료는 앞만엔 고급, 뒷판엔 싼재료를 썼는데 이것은 시민풍인 ( ),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.</li> </ul>
컬로트 (바지)	<p>컬로트의 길이는 1730년대부터 차차 길어져 ( )까지 내려왔다.</p>
프락	<p>프락은 사치스럽고 불편한 ( )복장에 대한 반동으로 1770년경 영국에서 도입되어 아비 아 라 프랑세즈와 병행하여 쓰였다.</p>

판탈롱	판탈롱은 영국 ( )를 본뜬 것으로 장화에 닿을 만한 길이였으나 더욱 길어져 뒤꿈치에 닿게 된다.
르댕고트	-르댕고트는 본식 영국의 ( )이다. -1725년 무렵 프랑스에 도입되자 이때까지의 ( )식 케이프를 압도하고 대표적인 외투로 되었다.

### 근세 복식-영국 모드가 후기 프랑스 로코코 의상에 미친 영향 및 변화

명칭	특징
코르셋	근세를 통해 ( )은 입었을 때의 외관의 변화보다는 그 구성법에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즉 코르셋을 입기 편하도록 개량한 것이다.
파니에	-파니에는 1780년경부터 부풀린 정도가 축소되어 져고 불편이 적도록 ( )으로 부풀음이 옮겨졌다. -( )라는 형식은 18세기 파니에의 마지막 스타일
로브아라 폴로네즈	원피스식이며, 앞부분이 크게 벌어져 ( )나 동의의 밑받침 스커트를 돋보이게 한다.
로브아라 시르카시엔	로브아라 폴로네즈의 변형으로, 길이가 짧아 다리가 보이는 것이 특징

로브 아 라 카라코	영국식 재킷으로 영국의 부인 ( )을 도입한 것이다.
로브 아 랑글레 즈	꼭끼는 동체와 넉넉한 ( )가 원피스로 된 형식으로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, 이 로브는 파니에 없이도 풍성하게 착용할 수 있었다.
슈미즈 아 라 렌	1781년부터 유행한 전원풍의 귀여운 로브
르댕고 트 가운	1787년에 소개된 ( ) 가운데로서 이제까지의 여성적인 분위기의 로브와는 매우 대조적인 의상이었다.

## 근대 복식-고전주의 양식의 복식-남자복식

명칭	특징
프락	-프락은 영국에서 전래된 상의로 프랑스에서 프랑세즈 대신 공복으로 사용된 것으로 혁명기에서도 전시대와 같은 프락을 입었다. -프락의 가장 특징 있는 부분은 뒤꼬리 부분이 ( )으로 된 것이다.
르댕 고트	외투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입혀진 것으로 ( )으로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이르렀으며 현대의 ( )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.
켈로트	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우아한 복장을 과장하는 귀족남자가 입은 것으로 무릎까지 오며 꼭 맞게 입는 것으로 주로 ( )을 나타낸다.
질레	수수한 색의 ( )과 단색으로 된 ( )에 명쾌한 색상을 부여시켜 주는 의복으로 중요했다.
슈미즈	-프랑스 혁명 후 복장의 간소화로 ( ) 슈미즈 대신 장식이 없는 것으로 ( ) 슈미즈가 나타났다. -흰색 ( )로 만들었으며 12~13cm정도의 ( )칼라를 세우고 끝을 뾰족하게 하여 뺨에 닿도록 입는 것이 ( )의 복장이었다.

## 근대 복식-고전주의 양식의 복식-여자복식

명칭	특징
슈미즈 가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 )과 유사한 스타일로서 폭이 넓지 않고 길고 흐르는 듯한 스커트에 하이 웨이스트로 입었다.</li> <li>- 코르셋이나 파니에 등의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 여성의 각선미가 그대로 드러났다.</li> <li>- 얇고 비치는 옷으로 겨울에도 입었기 때문에 1803년 파리에서 인플루엔자가 돌아 이 병을 ( ) 환자라고 했다.</li> </ul>
로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뒤에 끌리는 장식적인 ( )과 ( ), 16세기풍의 주름 칼라인 ( ), 다소 넓어진 스커트 폭은 ( )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.</li> <li>- 소매 디자인은 이 당시의 큰 변화였으며, ( )가 유행하였다.</li> </ul>
스펜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 ) : 현대의 반코트의 비슷한 형태</li> </ul>
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 ) : 스펜서와 비슷하나 가는 끈으로 허리를 묶음</li> </ul>
플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 ) : 면이나 모피로 안을 넣은 몸 전체를 덮는 것 라펠이 없고, 앞 상반신 가운데에만 단추를 달아 여밈</li> </ul>
르댕 고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 ) : 앞 중앙에서 자락 끝까지 열리는 단순한 것으로 방한을 위해 모피를 붙였고 길이는 발목을 덮을 정도</li> </ul>